

❖ 미가 7 장, '이스라엘을 향한 미가의 애가와 하나님의 응답'

❖ 들어가기

지난 6 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심판과 징벌을 예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신 하나님을 살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보다는 온갖 부정부패와 우상숭배를 행하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낫듯이 들추어내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시 선지자 미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법도, 질서도, 참된 지도자도 없는 이스라엘 향해 애통하는 노래를 지어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라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받게 되겠지만, 그 징계 후에는 다시 영광스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신실하심의 은혜를 깨달으며 찬송하였습니다.

1.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선지자 미가의 애가 (1-6 절)

1) 우선 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더 이상 의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노래하였습니다. (1 절)

▪ 1 절 주목!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 ①. 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름나무/포도나무로 + 의인을 그 열매로 비유하여 노래함!
- ②. 그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곧 여름나무와 포도나무의 상태는 어떠했나?
=> 추수를 끝낸 나무들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음!! 곧 가지만 남은 나무였다는 것!!
=>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속에는 미가가 간절히 찾는(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 ③. 미가는 2 절 첫부분에서 이것을 풀어서 노래하였음!
=> 2 절 A ->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 참고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의인을 찾았지만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하였음! (렘 5:1)

2) 그럼 구체적으로 미가는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2 B-6 절)

- ①.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위해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는 그런 악한 자들만이 많았기 때문! (2 절 B)
- ②.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두 손으로 악만 행하는 상태였기 때문!! (3 절 A)

- ③. 특별히 직무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할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서로 공모하여 악을 권장하고 있었다고 지적!! (3 절 B)
- ⇒ 미가는 저들중에서 가장 선하고 정직한 자라 말하는 이들도, 결국은 다 가시 같은 존재요, 찰레 울타리보다 더 백성들을 찌르며 고통을 주는 악한 자들이라 노래함!!
- ④.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더 이상 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 (5 절)
- ⇒ 5 절 ->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 ⇒ 곧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으로 가득찬 사회가 되었다는 것!!
- ⑤. 이와 같은 불신은 결국 가족관계까지 다 파괴시켰음!! (6 절)
- ⇒ 6 절 ->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회는 인간의 더러운 욕심과 욕망만이 가득하고, 불의와 미움, 불신만이 팽배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
- 따라서 이와 같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구원함을 얻고, 참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뿐!!

2. 선지자 미가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 (7-14 절)

- 1)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악만 행하는 타락한 공동체가 된 것을 애통해 하면서도, 낙심치 않고,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며 노래하였습니다. (7 절)

■ 7 절 주목!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 ①. 여기서 ‘우러러본다’의 히/원, ‘차페’란 말로 ‘두 눈 앞에 계신 것처럼 본다는 의미!

=> 곧 나는 항상 주님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맘으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

- ②. 또한 ‘바라본다’의 히/원, ‘호킬’은 ‘기다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의미!!

- ③. 따라서 7 절을 오늘의 핵심 구절로 삼자!!

=> 성도의 참 자세가 무엇일까?

아무리 불신과 악이 팽배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 2)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선지자 미가에게 더 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8-13 절)

- ①.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 +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빛이 되실 것!! (8 절)
- ②. 비록 연약하여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는 다시 회복하여 광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
⇒ 9 절 주목!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 ③. 나의 대적들, 특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고 멸시하며 공격하던 이들이 다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 (10 절)
- ④. 이스라엘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그 지경이 넓혀질 것! (11 절)
- ⑤.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 (12 절)
- ⑥.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땅들은 다 황폐하게 될 것!! (13 절)

- 이와 같은 미가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그의 구원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 참고로 성경학자들은 이와 같은 미가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시작되었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지속적으로 완성되어가고 있다고 해석!!

3) 미가는 이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 14 절 주목!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 ①. 우선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위한 선한 목자되시며,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양떼임을 고백!!
⇒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잊지않는 성도들이 되자!!
⇒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요, 백성이다!!
⇒ 그러므로 징계중에도 하나님을 찾자!! (흔나는 아이처럼...)
- ②. 여기 ‘갈멜’, ‘바산’, ‘길르앗’은 다 화려한 경관과 비옥한 목초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상징!
⇒ 곧 당시 미가는 참혹한 징계를 받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내다보면서도, 선한 목자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전성기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한 것!!
⇒ 어떠한 상황과 환경속에서도, 비록 그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자!

3. 하나님의 응답과 미가의 찬송 (15-20 절)

1) 미가가 드린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15-17 절)

①. 출애굽의 감격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 (15 절)

⇒ 이 약속의 1 차적 성취는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할 때 성취

⇒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희생, 그리고 부활로 성취됨!

②.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되신 하나님으로인해 두려워떨게 될 것! (16-17 절)

⇒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이 될 것을 의미!!

2)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미가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18-20 절)

■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찬양!!

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 +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 (18 절)

②.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 저들의 죄를 바다 깊이 던지시는 분!! (19 절)

③.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20 절)

➤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한 것!!

➤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자!!

❖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

❖ 중보 기도 나눔